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10년 연속 3할타 조준”

장성호 사상 첫 대기록 도전 ‘左투수에 약점’ 보완에 주력

“올해도 3할은 치겠는데, 그러면 10년 연속인가?” 7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카하마 구장에 차려진 KIA 스프링캠프 훈련장. 장성호의 프리베팅 모습을 몰크리미 지켜보던 박승호 수석코치는 “장성호는 부지런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라면서 “신경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 9년 연속 3할타자는 그냥 만들어 지는 게 아니라”고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박 코치는 “장성호를 4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스프링캠프의 컨디션이 가장 좋아보인다”며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스나이퍼’ 장성호(30·KIA)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10년 연속 3할타를 달성에 정조준했다. 올 시즌 목표는 타율 0.320, 타점 80개 이상이다. 지난 96년 KIA 전신인 해태에서 프로에 입문한 장성호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3할타의 위업을 이뤘다. 이는 삼성 양준혁(93~2001년)과 타이 기록이다. 양준혁은 2001년에서 연속 3할타가 멈췄지만, 장성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장성호가 올해 3할타에 성공한다면 한국야구 역사 사상 첫 ‘10년 연속 3할타’를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그만큼 3할타율은 넘기 힘든 꿈의 타율이다.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에서 연일 맹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성호는 올 시즌 3할타를 자신했다. 장성호는 “타격감이 빨리 올라온 것 같다. 몸 상태도 정규시즌에 맞춰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에서 타격훈련을 많이 했고, 여기서도 하루 300개 이상의 타격 연습을 하고있다”면서 10년 연속 3할타를 도전에 대해선 “타율이나 기록에 얽매고 싶지 않다.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3할타는 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게 웃었다. 우투수에겐 몸쪽 볼에, 좌투수에겐 바깥쪽 볼에 다소 약한 면을 보완하는 ‘좌타자’ 장성호는 올 시즌부터 달라지는 스트라이크존의 변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투고타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좌우폭은 좁아지고, 상하는 커지는 스트라이크존의 변화는 장성호처럼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 다운스윙을 구사하는 선수들에겐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 lucky@kwangju.co.kr



7일 일본 미야자키 KIA 스프링캠프에서 장성호가 프리베팅에 앞서 투스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도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장성호는 요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던 왼손투수의 바깥쪽 체인지업에 대비, 프리베팅때도 왼손투수와 상대하는 빈도를 높이는 등 약점 보완훈련에 몰입중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장)성호는 볼을 때리는 능력이 타고한 선수인데다 자기 관리도 철저하다”면서 “3할타 여부를 떠나 성호같은 선수가 우리팀에 있다는 자체 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무한한 신뢰를 나타냈다. / lucky@kwangju.co.kr

코치진 “훈련 점진에 잔심부름까지... 우리도 바빠요”

여기는 미야자키

“스프링캠프는 선수만 하나!” 7일 오전 6시 KIA 선수단이 묵고 있는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베르포트 호텔. 선수들의 기상 1시간에 앞서 코칭스태프의 객실 방 불이 환하게 밝혀졌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선수들 앞에 설 수 없는 탓이다. 오전 7시 선수단의 기상과 함께 트레이닝과 가벼운 체조 등으로 몸을 푼 코치진들은 아침 식사 후 곧바로 훈련장인 오쿠라카하마 구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선발조로 프리베팅에 나선 김상훈, 권운인, 송산 등 포수주 뒤엔 박승호 수석코치와 이건열 타격코치가 매서운 눈빛으로 배팅볼 등을 꼼꼼히 메모하고 지적했다. 같은 시간, 백인호 수비코치는 주 경기장에서 3분여 거리에 있는 실내 연습 구장에서 선수들의 오전 훈련 장비를 챙기느라 비지땀을 쏟았다. 투수코치인 김봉근·김태원·김정수·이광우 코치 등은 투수 훈련장 한 칸에 선수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 줄 모닥불을 피우는가 하면 각 투수별 훈련 스케줄을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오전 9시 30



야구배트의 또다른 용도? 7일 KIA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카하마 구장에서 이건열 코치는 엉덩이 사이에(왼쪽 사진), 백인호 수비 코치는 허리춤에 평고배트(아수에게 연습 타구를 날리는 배트)를 끼워넣은 채 티처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분. 저녁 식사 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선수들과 야간 훈련을 함께한 코치들은 하루 일정이 마감된 이후에도 사전에 약속된 일부 선수들과 1일 미팅에 들어갔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방으로 들어오니 시계 바늘은 어느새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 lucky@kwangju.co.kr

이천수 역시 ‘한국의 베키프’

환상의 프리킥 결승골... 그리스 1-0 제압 베어백호 새해 첫 승전보 ‘희망이 보인다’

한국 축구가 ‘종가’ 잉글랜드의 심장 런던에서 통쾌한 새해 첫 승전보를 전했다. 주인공은 이천수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진출 협상이 결렬된 아쉬움을 씻어내듯 환상의 프리킥으로 유럽 챔피언 그리스의 견고한 골문을 꿰뚫었다. 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미디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와 A매치에서 후반 33분 터진 이천수의 프리킥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6위 그리스와 역대 전적에서 1승1무로 앞섰다. 베어백호는 작년 7월 출범 이후 3승2무2패를 기록했다. 특히 약체 대만을 빼고는 승리를 올리지 못했던 베어백호는 제3국 중립 경기에서 2004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

2004) 우승팀 그리스를 격파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초반엔 몸이 무거웠다.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폭을 좁히지 못했고 공격 전개도 매끄럽지 못했다. 분위기 반전은 전반 33분부터. 이영표-박지성의 폼비 플레이로 얻어낸 프리킥을 이천수가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직접 쏘았다. 골키퍼 안토니스 니코플리디스가 가까스로 쳐낸 볼을 이호가 따라붙었지만 무위였다. 전반 36분 파니스 게카스의 슛을 김용대의 선방으로 막아낸 한국은 전반 38분 골대 불운에 올랐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다섯 차례나 골대를 맞춘 박지성이 오범석의 오른쪽 크로스를

치고 아득했다. 후반 초반 그리스가 힘을 내면서 가공할 공세를 퍼부었고 베어백호는 심하게 흔들렸다. 후반 5분 교체 멤버 스텔리오스 지안나코 폴로스의 헤딩슛이 크로스바를 맞쳤다. 선방을 펼치던 김용대도 쏘박할 수 없는 실점 위기였다. 기다리던 결승골은 후반 33분에 터져나왔고 한국 축구 새해 첫 골의 영광은 이천수에게 돌아갔다. 박지성이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자 전반 세 차례 증거리 슛을 때렸던 이천수가 키커로 나섰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감아찬 볼은 유도 미사일처럼 예리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199cm의 교체 골키퍼 코스타스 할키아스가 몸을 던졌다. 하지만 이천수의 오른발에 제대로 걸린 볼은 할키아스의 손끝을 스치고 그리스 골문 왼쪽 상단의 그물을 세차게 흔들었다. 지난해 6월 2006 독일월드컵축구 토고전 프리킥 골을 연상케한 자폭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미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 축구대표팀과 그리스의 평가전에서 이천수가 결승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느린 공격·골 결정력 부족 여전

베어백호가 2007년 새해 첫 A매치에서 유럽의 강호 그리스를 상대로 승전보를 올렸지만 여전히 한 톱포 느린 공격 전개와 집중력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빠른 공격전개 절실= 베어백호는 4-3-3 전술을 바탕으로 조제진(시미즈)을 원톱으로 세우고 좌우 측면에 이천수(울산)와 설기현(레전)을 배치했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맡겼다. 김남일(수원)과 이호(제니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운 뒤 이영표(토트넘), 김진규(전남), 김상식(성남), 오범석(포항)을 포백(4-back)으로 출전시켰다. 독일월드컵 이후 ‘베스트 11’로 낙점을 찍었던 선수를 대부분 내세운 베어백 감독은 박지성을 시발점으로 삼아 좌우 측면의 이천수와 설기현이 공격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베어백호, 그리스전 이후 과제

하지만 그리스의 수비벽에 최전방의 조제진이 고립되고, 그리스의 초반 측면 돌파를 막느라 이영표와 오범석의 활발한 오버래핑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 좌우 날개의 공격력에 힘을 불어넣어 주지 못했다. 또 상대 공격을 차단한 뒤 이어지는 역습은 여전히 한 톱포 느리게만 느껴졌다. 한국은 수비진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 좌우 공격수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이어지는 패스의 단계가 많아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 후방에서 한 번에 이뤄지는 톱패스의 정확도 역시 떨어지면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못한 것도 못내 아쉬웠다. ▲영원한 해결 과제=수비조직력과 골결정력= 이날 그리스전에서 유독 김용대의 선

방이 빛났지만 역으로 따져보면 수비라인의 공격허용이 슈팅의 발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반 4분 그리스의 ‘젊은 피’ 사마라스의 왼쪽 측면 돌파에 오범석과 김상식이 허물 어지면서 슈팅 기회를 내줬다. 또 전반 37분에는 수비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면서 문전 공방 끝에 김용대의 투혼으로 실점 기회를 흔하게 넘겼다. 후반 인저리 타임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라인이 무너져 비록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실점이나 다른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도 재공권을 장악하지 못해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맞은 등 2007 아시아컵 축구대회 본선을 앞두고 수비조직력 재건은 베어백호의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BO “올 관중 400만명 돌파 목표”

2007 프로야구가 1996년 이후 11년 만에 관중 400만명에 도전한다. 7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8개 구단은 관중 유치 목표도 지난해 총 관중 304만254명(경기당 평균 6천32명)

보다 100만9천346명이 증가한 404만9천 600명(평균 8천35명)을 내걸었다. 지난해 72만6천359명으로 최다 관중을 유지한 두산이 75만명(평균 1만1천905명)을 끌어 모으겠다고 밝혔고, 롯데 팬

이 많은 롯데는 지난해 44만1천133명보다 무려 55만명이나 늘어난 100만명(평균 1만5천873명)을 불러 들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LG와 SK가 각각 90만명, 45만9천명을 경기당으로 불러 모으겠다고 밝혀 신임 감독 영입 이후 달라진 팀 색깔로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